

# 다니엘서 - 번호 125

예언적 의미의 해명: 다니엘서 11장 40절 해석과 현대 기독교에 대한 함의

Jeff Pippenger

2024-03-09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끝의 때'에 시작되지만, 그 절은 두 번의 '끝의 때'를 지목하며,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이가 첫 번째 '끝의 때'를 두 번째 '끝의 때'와 대응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적용이 이루어지면, 1798년에 시작된 밀러주의자 역사선은 1989년의 미국 역사와 병행하게 된다. 그 두 선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참된 개신교의 뿔의 선과 공화주의의 뿔의 선을 식별한다. 두 선 모두 1798년의 '끝의 때'에 시작하며, 1989년의 '끝의 때'는 그 절에서 봉인이 풀린 진리의 이정표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할 뿐이다.

셋째 천사의 운동은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했지만,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7년간의 반역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셋째 천사의 도착은 2001년 9월 11일에 반복되었다. 1863년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데스에서의 첫 진영과 열 명의 정탐꾼의 반역으로 예표되었고, 2001년 9월 11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데스에서의 마지막 진영과 모세의 반역으로 예표되었다. 1863년의 반역은 가데스에서의 첫 반역을 대표했으며, 그것은 광야에서의 사망의 심판을 초래했다. 2001년 9월 11일의 반역은 가데스에서의 마지막 반역을 대표했으며, 그것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지도부의 죽음을 초래했다.

1840년 8월 11일의 천사의 강림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운동을 개시했으며, 화이트 자매는 그 운동을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스러운 현현이라고 불렀다. 그 강림은 2001년 9월 11일을 예표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가리켰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권능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대쟁투, 611.

1844년 10월 22일(첫 가데스)에 있었던 세 번째 천사의 첫 도래는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 1863년까지 그들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 '여리고를 재건'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았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이 성 여리고를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가 그 기초를 그의 만아들로 놓고, 그 문들을 그의 막내아들로 세우리라." 여호수아 6:26.

첫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현대 이스라엘의 첫 가데스(1863)에서의 반역은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저주를 불러왔다. 셋째

천사가 2001년 9월 11일(마지막 가데스)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은 셋째 천사의 도래를 알리며, 그로써 마지막 때에 임박한 일요일의 도래도 알린다. 1863년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셋째 천사의 시험 기간이 끝났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1863년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상징이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시작으로 끝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1863년에 그 나라는 두 부류로 나뉘었고, 마찬가지로 일요일 법령의 때에도 두 부류가 드러날 것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셋째 천사의 시험 기간은 1844년에 시작되어 1863년에 끝났으며, 그 시작과 끝은 모두 말세의 일요일 법령을 가리켰다. 시작(1844)과 끝(1863) 사이의 역사에는 밀러주의 운동의 반역(1856년)이 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진리'라는 표징을 지닌다. 2001년 9월 11일의 두 번째 카데스로의 귀환은 셋째 천사의 시험 과정의 시작을 가리키며, 그 과정은 1863년에 의해 예표된 바와 같이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결말을 맺는다.

그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인간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역사에서 상징된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의 집행과 부합하여 여리고와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40절은 1798년에 시작하여 41절의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1798년의 끝의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의 내적 노선을 대표하며, 그것은 첫째 천사의 운동의 밀러주의자들을 시작하여 셋째 천사의 운동과 14만 4천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한 절에 담겨 있다.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전쟁은 1798년 남방왕의 대두로 시작되어, 1989년에 성경 예언의 다섯째와 여섯째 왕국의 동맹에 의해 남방왕이 패배함으로써 결말을 맺었다. 1798년에 시작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밀러주의자들은 로마에 대한 전쟁으로 인식했는데, 그 로마를 그들은 이교주의와 교황주의라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으로 보았다. 그 전쟁이 1989년에 끝났을 때에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이 모두 관여했으며, 그때부터 그 세 세력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예언적 묘사가 시작되었다. 아마겟돈은 다니엘 11장 45절에 지리적으로 나타나 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서 교황의 최후를 초래하는 세 세력의 예언적 역학 관계를 밝혀 준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41절에 묘사된 예언적 역사는 41절부터 44절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1989년의 '끝의 때'를 기점으로, 1798년이라는 두 번째 증거를 더해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규정할 때, 41절부터 44절은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교황권의 삼중 연합을 지목하고, 45절은 그 권세가 그 끝에 이르는 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과 일곱 교회의 관계가 보여 주듯, 하나님의 교회 외부의 역사를 보여 준다.

1798로 대표되는 예언적 역사의 선은 주로 조사심판을 나타내며,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1989의 선은 주로 집행심판을 나타낸다. 1798은 주로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을 강조하고, 1989는 주로 엘리야 사자의 사역을 강조한다.

1798년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신성과 인성의 영구적 결합을 이루는 언약 관계로 이끄시는 예언적 역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 왔다. 그

마지막 때의 언약은 성경에서 거듭 확인된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이끌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오히려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각자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31-34.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언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심판의 기간을 뜻한다. 첫째 천사는 끝의 때인 1798년에 나타나 1844년에 있을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는데, 그것은 또한 마지막 때의 도래이기도 했다. 마지막 때는 예레미야가 말한 장차 올 "날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때이다. 그 사역은 반형적 대속죄일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 때" 동안 이루어진다.

만일 밀러주의 재림운동이 1844년 10월 22일에 임한 셋째 천사의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다면, 그들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영원한 집에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날들 후에"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날들"은 1844년으로 이끌어 가서 그 해에 끝난 예언적 기간들을 가리킨다. 그것들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이 언급하는 "날들"이다.

그러나 너는 끝날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네가 쉬리니, 끝날에는 네 분깃에 서리라.  
다니엘 12:13.

'그 날들의 끝'에, 혹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날들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속에 자신의 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시려 하셨다. 여기서 속은 낮은 본성, 곧 바울이 말하는 '육'이며, 마음은 높은 본성이다. 그 언약은 회심 때 그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재림 때에는 새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을 지니도록 창조된 아담과 함께 인류는 타락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이중 본성을 지닌 인류를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는 것이다.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고, 내가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꺾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라. 참으로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라. 또한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 날에 이르러, 내가 응답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하늘에게 응답할 것이요, 하늘은 땅에게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할 것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하여 땅에 심고, 공흙을 얻지 못하였던 자에게 공흙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하리라.' 호세아 2:14-23.

"그 날에 ...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집에서 피한 자들은 ... 진리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주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10:20.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는 기별에 기꺼이 응답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이 땅에 묶어 두는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임에서 스스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신성한 요구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6-7, 12.

'보라, 날들이 이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밭 가는 자가 거두는 자를 앞지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모든 언덕들이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거주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또 동산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모스 9:13-15.' 리뷰 앤드 헤럴드, 1914년 2월 26일.

예레미야가 '그 날들 후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에 갑자기 오셔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상된 그 사역에 앞서 있던 '그 날들'은 1798년과 1844년에 끝난 예언적 기간들이었다. 그 예언적 날들(기간들)의 끝은 그리스도께서 밀러파 성전을 세우신 46년을 표시했으며, 그분이 1844년 10월 22일에 갑자기 오셨을 때에는 말라기 3장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또한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도 성취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그리고 '그 날들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세우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 하셨는데, 이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들의 마음과 속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것이었다.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함이니,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8-10.

"those days"라는 말은 다니엘의 "end of the days"를 가리키며, 그것은 1798년과 1844년에 끝났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798년에 시작하는 개신교 뿔의 전개는 십사만 사천과 맺어지는 언약 관계를 강조한다. 히브리어 단어 "lot"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던 작은 돌을 가리킨다. 다니엘은 "end of the days", 곧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어 그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가서 쉬라(죽음 가운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끝날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네가 쉬리니, 끝날에는 네 분깃에 서리라.  
다니엘 12:13.

'날들의 끝'의 '날들'은 1844년에 끝난 기간 예언들을 가리킨다. 그때 이후로는 예언적 기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라 환상, 곧 그분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나타남을 의미하는 2300년의 기간도 그때 끝났고, 마지막 진노의 2520년도 끝났다. 이는 1798년 '끝의 때'에 첫째 진노의 날들이 끝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말한 '그 날들 후에'는 그 후 바울에 의해 다루어졌다. 바울은 예레미야의 '그 날들 후에'를 두 번 언급하는데, 그는 단지 '그 날들 후에' 제정될 언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함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도 있다. 히브리서 10:14-21.

그리스도의 현현에 관한 마라 환상의 예언과 예언적 역사에 관한 하존 환상의 이천오백이십 년 예언을 잇는 이백이십 년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상징적 연결고리로서 그 두 예언 기간의 시작을 서로 묶어 주며, 이는 셋째 천사의 운동 동안 일어나는 정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고, 그 결과로 그분이 십사만 사천과 맺는 언약으로 이어진다.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보여 주는 chazon의 이상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반역 이후 죄에 의해 짓밟혀 온 인류에 관한 이상이며,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 주는 marah의 이상은 둘 다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2,520년의 예언이 두 개 있으며, 그것들은 군대와 성소의 짓밟힘을 상징한다.

그 두 예언은 인류가 짓밟히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은 marah의 환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신 그 두 가지 진노는 타락한 인류 위에 임한 진노를 나타내며, 그것은 오직 타락한 성전을 재건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되고 회복될 것이다.

두 가지 분노는 인류의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을 상징한다. 아담의 타락 때, 하위 본성이 상위 본성 위에 우위를 차지했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바는 상위 본성이 하위 본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담의 타락 때, 상위 본성이 하위 본성의 정욕에

굴복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뒤바뀌었다. 이것이 성경적 "회심"의 의미다. 회심한다는 것은 상위 본성이 하위 본성 위에서 지배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회심이란 뒤바꾸는 것, 곧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북왕국에 대한 첫 진노는, 타락할 때 상위 본성을 복속시킨 하위 본성에 대한 진노였다. 그 진노가 먼저 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에 바로 그 시작점에서 착수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위 본성의 정욕, 곧 식욕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십 일 금식으로 그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려면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적 습관을 개혁하는 것으로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쇠퇴와 인류의 퇴폐는 주로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기인한다. 증언 제3권, 486쪽.

둘째 진노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왕국으로 대표되는 더 높은 본성을 향한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도시이다.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려 했던 일과 지금 그분이 이루고 계시는 일은 에스겔의 두 막대기로 상징된다.

에스겔의 두 막대기가 영원히 하나의 막대기로 합쳐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이 올바른 위계적 구조로 되돌아가며, 사람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언약을 가리킨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째 진노로 상징되는 인간의 하위 본성이 마지막 진노로 상징되는 인간의 상위 본성을 지배했다. 그러므로 첫째 진노는 남왕국보다 지리적으로 '위'에 있던 북왕국을 향한 것이었다.

마레와 하존의 두 환상을, 신성과 인성의 공통된 시작에서 서로 연결하는 이백이십 년은, 그리스도께서 14만4천과 함께 셋째 천사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둘 다 하나의 막대기로 합쳐진다. 그것은 1844년의 나타남에 대한 예언과 결합된 남왕국에 대한 최후의 진노의 예언으로서, 언약은 회심할 때 새 마음을 주지만 새 몸(북왕국)은 오직 재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두 '끝의 때'를 지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 기간 동안 예언적 역사에서 내적·외적 두 노선을 강조한다. 그 절에서 인봉이 풀린 진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서 식별하고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내적과 외적 진리의 노선을 모두 대표한다.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진리는 지식의 인봉이 풀리는 효과와 연결된 빛으로 나타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진리를 나타낸다.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권세들 사이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빛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진리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요셉을 위하여,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라고 써라.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이어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그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말하기를 '이것들로 네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그에게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내 손에서 그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네가 그 위에 쓴 그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있게 하라.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이 흩어져 간 이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다가 사방에서 모으고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리니, 한 왕이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던 모든 거처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깨끗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한 목자만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라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살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나의 성소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두겠다. 나의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인 줄 알게 되리라." 에스겔 37:15-28.